

국어 영역

13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Let ' s live wilfully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 독서
- 문학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승훈의 시론은 전통적인 시적 규범에서 벗어나, 언어의 지시 기능과 재현 방식을 해체함으로써 난해성과 '무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가 선언한 **비대상**은 표면적으로는 대상 부정의 태도를 표방하지만 이는 단순한 부정이나 도피를 넘은 것으로, 새로운 의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드러난다. 이승훈이 시론에서 보이는 무의미 지향은 실제로 어떻게 언어적 효과를 산출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 놓는가. 결국 무의미를 통해 발생하는 의미의 역설은 그 난해성 속에서 독자의 해석적 개입을 독려하고, 기존의 시적 규범을 넘어서는 독창적 시 세계를 형성한다.

이 시론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60~70년대 한국 현대시의 실험정신을 고찰해야 한다. 당시 시인들은 현실 도피나 관념적 표현에 그치는 기존 시풍에서 벗어나, 언어 자체가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그 한계를 돌파하고자 노력했다. 서구의 초현실주의나 해체주의로 인하여 당대 시적 담론에 파문이 **④ 일어나면서**, 언어에 대한 존재론적 불신과 대상 세계에 대한 반발이 겹쳐 나타났다. 특히 이승훈은 비대상 개념을 통해 대상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는데 이는 단순히 외부 실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재현 기능에 내재한 관습적 의미 부여 과정을 해체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그의 시에서는 파편화된 이미지, 불연속적 구문, 논리적 연결의 단절 등을 통해 그가 바라던 무의미의 지평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의미는 '의미'를 산출할 수 없을까? 이승훈은 전통적인 독법에서 기대되는 명료한 의미 대신, 과잉 혹은 결핍 상태의 언어를 독자에게 제시한다. 독자는 이해를 매개로 하여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난해한 파편들을 접합해 가며 의미를 창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능동적 해석 과정은 텍스트 안에서 미리 완결된 의미를 찾기보다, 언어적 공백과 단절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불꽃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무의미를 통한 의미라는 역설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무의미의 언어는 허무나 무위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타성화된 상징 체계에 균열을 냄으로써 독자에게 새로운 의미 가능성을 계속하여 열어 준다. 결과적으로 이승훈 시의 독자는 해석적 참여라는 능동적 태도를 통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던 언어 속에서 발화한 의미의 불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 세계 자체를 넘어서는 지향과도 맞닿아 있다. 언어가 결코 대상 실재를 완전하게 붙잡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그의 태도는, 언어와 존재의 경계를 허무는 초월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승훈의 시에서는 논리적 설명이나 구체적 이미지의 파악이 아닌, 직관적 통찰을 통해 시적 세계에 진입하도록 독자를 요구한다. 무의미의 언어, 즉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언어는 독자로 하여금 대상 세계를 넘은 빈 공간에 집중하게 하여 일종의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하여 시의 난해성은 단순한 이해 불가능의 지점이 아니라, 독자는 모든 의미가 해체된 지평에 도달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음'을 제시하는 가능성임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이승훈 시론의 무의미 추구는 곧 형식과 격식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유발하는 언어 해체의 시도로 기능하며, 전통적 의미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도 끊임없이 의미 가능성을 재창안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훈은 대상을 부정하는 형태를 통해 새로운 의미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② 1960~70년대의 한국 시인들의 실험정신은 이승훈의 시론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한계를 점검하는 것에 있다.
- ③ 언어 표현의 의미 과잉은 독자들의 텍스트를 넘어서는 의미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 ④ 무의미한 언어 관계를 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들은 해석적 개입에 머무르게 된다.
- ⑤ 불연속적 구문을 논리적 설명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해체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없다.

2. **비대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 세계의 재현을 유발한다.
- ② 관습이 해체된 무위의 상태이다.
- ③ 논리적 연결을 단절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⑤ 외부 실재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3.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너를 만난 날은
날개 달린 날이다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현실이
태어난 날
...
너를 만난 날은
만신창이가 되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문득 가을이 오던 날
...(후략)

- 이승훈, 「너를 만난 날은」 중

- ① '너를 만난 날'이 '날개 달린 날이다'는 것에서 지시 기능의 의도적 해체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②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현실이' 태어나는 것에서 시인이 접합한 논리적 공백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만신창이가 되어' '여름을 힘겹게 보내'는 것에서 격식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시인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④ '너를 만난 날'의 여러 모습이 혼재하는 것에서 언어와 존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문득 가을이 오던' 것에서 구체적 이미지를 통한 초월적 사유가 진행될 수 있겠군.

4.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 가족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작은 실수로 거대한 불길이가 일어났다.
- ③ 아버지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안이 일어나게 되었다.
- ④ 호수의 한가운데서 거품이 일어났다.
- ⑤ 학교는 학생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잠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도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 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상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서 마당 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차고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 전에 잃어 버렸던 형체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은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 준 그늘 없는 표정-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회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의 제약까지를 주어 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견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空轉)같아 보던 생활이 이곳 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는 생각이 나를 몹시 짓누르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는 두 쪽이 같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의 내부 한쪽에서 솟아나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어느 쪽인가 한편이 틀려 있다.' 라는 집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발전하여, 미리 그러기로 되어 있었다는 듯이, 나는 이 양육의 식구들 생활을 빈껍데기에 비유하고 있었다. 빈껍데기의 생활, 아니라면 적어도 방향이 틀린 생활, 습관적인 생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나를 끌고 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무슨 행동이 필요하다는 충동에 이끌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다.

드디어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유난히 조용조용한 식모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주전자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식모가 문단속을 하러 나가는 소리가 난 뒤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루약은 성공적으로 음료수에 용해되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다소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모두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자기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방의 불도 꺼졌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잠을 이루고 있을까. 나는 그들이 다시 자기의 방에 불을 켜고 앉아서 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들뜨는가를 생각하고 있기 바랐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와서 의자 위에 앉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방마다 불이 켜지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잠들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그들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 그들은 잠든 채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내가 이제라도 꽝 하고 피아노를 울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구원이라도 받은 듯이 뛰어나오리라. 물론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고 나를 나무란다는 대의명분으로서. 나는 피아노에 생각이 닿은 것이 기뻐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건반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웃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 놓여졌다. 이제 손에 힘만 주면 되었다. 물론 곡도 무엇도 아닌 광폭한 소리만이 이 집을 떠내려 보낼 것이다.

㉣여기서 공원의 그 젊은이는 그의 얘기를 그치었다. “그저 덧붙여서 한마디 한다면...” 하고 그 젊은이는 잠시 후에 얘기했다. “그날 밤 피아노가 그토록 시끄럽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피아노 앞에서 떼어 내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몇 개의 기침 소리를 들은 듯하기도 했습니다만.” 피아노 앞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고독함을 느꼈고 그의 방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그의 손목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이 왜 그렇게도 역세계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젊은이는 나를 뻔히 쳐다보며 물었다.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 “글쎄요.”라고 나는 대답하며 생각했다. 나로서는 얼른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에 대한 인물의 심경 변화를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동일한 장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특정 집단을 향한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그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 추리하고 있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에게 배치된 '시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말이다.
- ② ㉡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관해 스스로 반박하는 질문을 던지는 말이다.
- ③ ㉢은 자신과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한 편이 틀렸다는 인물의 확신이 드러나는 말이다.
- ④ ㉠은 앞의 이야기가 '그 젊은이'의 이야기였음이 드러나는 말이다.
- ⑤ ㉢은 앞서 이야기한 의문을 '나'에게 묻는 '젊은이'의 말이다.

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제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은 인물이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은 인물이 반감을 가지는 대상이고, ㉢은 인물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활용했던 시간이다.
- ③ ㉠은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질타를 받은 원인이고, ㉡은 인물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 ④ ㉠은 인물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계기이고, ㉢은 인물이 제약을 받은 결과이다.
- ⑤ ㉡은 인물이 속한 집단이 따르는 규율이고, ㉢은 그 규율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역사(力士)」의 양옥집은 '공원의 젊은이'를 구속하는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때, 그는 양옥집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한 후, 사실 양옥집의 질서는 사람들을 예측시키려는 폭력성을 지녔으며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변질된 질서인 것을 깨닫는다. 한편, 그는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통해 양옥집의 질서를 깨버릴려고 하는데, 이는 좌절되며 질서의 폭력성으로 인해 다시 예측되고 만다.

- ① 양옥집 사람들이 '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양옥집에 대한 그의 이해를 알 수 있군.
- ② 그가 '양옥의 식구들'의 생활을 '빈껍데기의 생활'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양옥집의 질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그가 '꽝 하고 피아노를 올리면 '그들이 '나무'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저항에 실패할 것이라 예상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그가 피아노를 쳤지만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 뿐이었'던 것에서, 그가 질서를 깨기 위한 저항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군.
- ⑤ 그가 자신을 방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팔'이 '억세게 느껴졌'던 것을 통하여, 사람을 예측시키려는 질서의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군.